

노인의 성생활 실태와 성 인식에 관한 연구

권정희¹⁾ · 이윤미²⁾

¹⁾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²⁾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ex and Sexual Life of the Elderly

Kweon Jung Hee¹⁾ & Lee Yun Mi²⁾

¹⁾Inje University Pusan Paik Hospital, ²⁾Inje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elderly people's sexual life, their perception of sex and identify difference between perception of sex of elderly and adults. **Methods:** A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188 elderly people and 181 adults.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frequency, percentage, χ^2 -test, t-test, ANOVA. **Results:** 54.0% of the elderly were keeping their sexual life. 44.6% of those keeping their sexual life had a sexual affair once or twice a month. 56.4% of them had a sexual affair with their spouses. The elderly subjects scored 2.04 on average out of the full point of 4.0 about their perception of sexual life. Specifically, male subjects scored higher(2.41) than female subjects(1.67).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lderly people's perception of sexual life and adults' the perception of sexual life about the elderly. The perception of sexual life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the spouse, sex, education, health state, present sexual life, sexual frequency, sexual satisfaction, the solution of its desire, the feeling about the sex. **Conclusion:** It was demonstrated through this study that the elderly people were maintaining their sexual desire and life continuously, and therefore, it is conceived that the elderly people's sex should be assessed and handled from a general perspective.

Key words : Aged, sexuality, perception, behavior

* Corresponding author : Lee Yun Mi, Inje University

Tel : 82-51-890-6933, 82-11-551-0603 Fax : 82-51-896-9840 E-mail : lym312@inje.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과학의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남성의 평균수명이 2001년 72.1세, 여성은 79.5세에서 2010년에는 남성은 75.5세, 여성은 82.2세로 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7.6%인 약 358만 명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속도는 OECD 국가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향후 20년 내에 15%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im, 2005).

이처럼 평균수명의 연장과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관계에서 노인의 위상에 변화가 오고 경제력을 상실하게 되어 가정이나 사회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빈곤문제, 노인의 건강관리문제,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 문제, 재취업의 어려움, 여가활동의 미비,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의 미비, 가정과 사회에서의 심리·사회적인 소외, 갈등 및 고독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Yang, Kim, Jeong & Kim, 2003).

그러나 현대의학 발달은 노인의 평균 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노인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함에 따라서 중, 장년 못지 않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년기간의 연장은 노인의 소득보장, 노인의 여가 활동 보장 및 노인의 성문제 등 노인의 다양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의 성문제는 단지 외로움과 고독의 수준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Chung, Ahn & Jeon, 2004). Kim(2002)의 연구에서는 능동적인 성생활과 친밀한 관계를 즐기고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는 등

노년기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젊음을 지향하는 문화를 너무 강조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성적 의미나 성적 장면을 전달하는 대중매체와 광고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극받고 있다. 또한 젊음과 아름다움에 관련된 측면에 대해서만 성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있으며, 노인의 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편견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반적인 사회의 경향은 노인을 여성도 남성도 아닌 무성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편견들은 노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적욕구를 제한하게 만든다(Susan & Chris, 2002).

이러한 노인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관습과 분위기는 노인의 성에 대한 폐쇄성으로 나타나 노인의 성매춘과 노인의 성질환 증가라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Kim & Lee, 2000). 노인 자신들의 성에 대한 지식부족과 부정적인 태도 및 성적욕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방법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노인에서 성적인 행동이 활발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며 성인들도 노인의 성문제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단지 생명연장 측면에서의 장수가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노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통하여 노인의 성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에 대한 거리낌 없는 의사소통과 더불어 문제파악과 적절한 성교육은 노인의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건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들의 태도변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인의 성에 관련된 연구는 노인의 성생활 실태를 파악하거나, 노인에

게도 성적욕구가 있어 성생활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Dimah & Dimah, 2004; Kang & Kim, 2002; Keown, 2002; Kim, 2005; Kinsey, Pomeroy & Martin, 1948; Lee, 1999; Oh, 1998; Susan & Chris, 2002).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간의 기본욕구 중의 하나인 노인의 성생활 실태를 조사함과 동시에 노인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성인식과 일반 성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성인식을 조사하여 그 차이를 봄으로써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 여부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노인들에게 자신의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중요성을 갖도록 하고 노인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성생활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노인의 성인식과 성인이 인식하는 노인의 성인식을 파악한다.

셋째, 노인의 일반적 특성, 성생활 실태에 따른 성인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용어 정의

1) 성인식

성인식은 스스로가 자신의 성생활에 대한 욕구, 태도, 중요도에 대한 인식정도를 의미한다(Kim, 2002). 본 연구에서는 Lee(1999)가 개발한 성생활 태도 3문항, 성생활 중요도 3문항, 성생활 욕구 4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의 성인식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노인들에게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성생활 실태와 노인이 인지하는 성인식과 더불어 성인이 인지하는 노인에 대한 성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05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였으며 노인에 대한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인 사회복지사 1명과 간호사 4명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보조원에게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 그리고 면담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B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가능하고 신체적 외부적 결함을 지니지 않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허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방법은 임의 표집방법으로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노인정 2곳, 임대주택 노인회관 2곳, 노인대학 1곳, 아파트 경비실 3곳, 종친회모임 1곳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참여를 동의한 노인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읽고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한글 해독이 어려운 노인들은 조사원이 직접 설문지를 한 문항씩 읽어주고 응답한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남자 노인 100명, 여자 노인 100명으로 할당하여 200명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그 중 성실히 응답한 188부를 분석하였다. 일반성인에 대한 조사는 B시에 거주

하는 만 19세에서 50세 이하를 대상으로 대학 1곳, 병원 1곳에서 직원 및 병원방문객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자가보고식으로 하였으며 총 200명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200부 중에서 성실히 응답한 181부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8 문항, 노인의 성생활 실태 6문항, 성인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7문항,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내용 중 성인식도는 Lee(1999)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성생활 욕구 4문항, 성생활 태도 3문항, 성생활 중요도 3문항으로 총 10개 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성생활에 대한 인식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 $\alpha=.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90$ 이었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WIN 1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노인과 성인의 일반적 특성, 노인의 성생활 실태는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2) 노인의 성생활 실태에 따른 남녀의 차이는 χ^2 -test로 분석하였다.
- 2) 노인의 성인식과 성인이 지각하는 노인에 대한 성 인식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 3)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성생활 특성에 따른 성인식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노인과 성인의 일반적 특성

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노인의 성별로는 남자노인은 50.5%, 여자노인은 49.5%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38.8%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72.2세였다. 결혼은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50.5%, 사별이 45.2%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없다가 78.2%로, 교육은 초등졸이 27.7%, 종교는 불교가 49.7%로 가장 많았다.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31.4%, 경제상태는 보통이다가 43.8%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편, 본 연구대상자인 일반성인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로 남자 45.3%, 여자 54.7%이었고, 연령별로 19~30세 75.0%, 31~40세 18.9%, 41~50세 6.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26.6세였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80.1%로, 결혼 생활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가 41.6%로 나타났다. 직업은 있다가 55.8%, 종교는 기독교가 29.8%, 경제 상태는 보통이다가 60.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노인의 성생활 실태

노인의 성생활 실태는 Table 3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54.0%는 현재 성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자노인의 80.0%, 여자노인의 27.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이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해 성에 대해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성생활 욕구해결방법은 남자노인은 이성과의 성생활을 한다가 43.2%,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참는다가 29.5%, 취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N = 18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x	Male	95(50.5)
	Female	93(49.5)
Age(yr)	65~69	73(38.8)
	70~74	53(28.1)
	75~79	39(20.7)
	80~84	15(8.0)
	≥85	8(4.3)
Marital Status	Living with spouse	95(50.5)
	Lose one's spouse through death	85(45.2)
	Separation	1(0.5)
	Divorce	6(3.2)
	Remarriage	1(0.5)
Job	No	147(78.2)
	Yes	41(21.8)
Education	None	44(23.4)
	Elementary	52(27.7)
	Middle school	31(16.5)
	High school	43(22.9)
	College and above	18(9.6)
Religion	None	34(18.2)
	Buddhism	93(49.7)
	Protestant	24(12.8)
	Roman Catholic	26(13.9)
	Others	10(5.3)
Health state	Very healthy	9(4.9)
	Healthy	58(31.4)
	Moderate	81(43.8)
	Unhealthy	33(17.8)
	Very unhealthy	4(2.2)
Economic state	Very rich	2(1.1)
	Rich	40(21.3)
	Moderate	97(51.6)
	Poor	41(21.8)
	Very poor	8(4.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ult

(N = 18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x	Male	82(45.3)
	Female	99(54.7)
Age(yr)	19~30	135(75.0)
	31~40	34(18.9)
	41~50	11(6.1)
Marital status	Married	36(19.9)
	Single	145(80.1)
Marital lif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15(41.6)
	Satisfied	15(41.6)
	Moderate	5(13.9)
	Unsatisfied	1(2.9)
Job	No	80(44.2)
	Yes	101(55.8)
Religion	None	84(46.4)
	Buddhism	19(10.5)
	Protestant	54(29.8)
	Roman Catholic	20(11.0)
	Others	4(2.2)
Economic state	Rich	11(6.1)
	Moderate	109(60.2)
	Poor	61(33.7)

미생활이나 운동에 몰두가 12.6% 자위행위가 9.5%이었으나, 여자노인은 해결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참는다가 44.0%, 취미생활이나 운동에 몰두한다가 18.7%, 자위행위가 11.0%, 이성과의 성생활은 한다가 8.8%순으로 나타나 성생활 욕구해결방법에 있어서도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노인의 성생활 장애는 남자노인은 나이가 들어서 성기능 약화가 56.8%, 배우자가 응해주지 않아서가 13.6%, 기회(상대)가 없어서는 8.4%, 경제적 문제가 6.3%순이었으나 여자노인은 나이가 들어서 성기능이 약화가 35.4%, 기회(상대)가

없어서 27.9%, 적당한 장소가 없다는 7.3%, 자녀나 가족 등 사회 윤리적 체면이 5.4%, 배우자가 응해주지 않아서는 4.3% 순으로 성생활 장애에서도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노인의 젊을 때의 성생활 경험은 남자노인은 약간 많았다가 34.7%, 보통이다가 53.7%이나, 여자노인은 보통이다가 58.1%, 별로 없었다는 18.3%, 약간 많았다가 16.1%로 나타나 젊을 때의 성생활 경험도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노인의 성에 대한 느낌에서 성적욕구에 대해서는 '아무생각도 없고 뭘 봐도 아무 느낌

<Table 3> Sexual life of the elderly

(N = 188)

		Male	Female	total	x ²	p
		N(%)	N(%)			
Sexual life (Present)	Yes	76(80.0)	25(27.2)	101(54.0)	52.51	.001
	No	19(20.0)	68(72.8)	87(46.0)		
Sexual desire solution	Sexual life with the other sex	40(42.1)	8(8.8)	48(25.8)	29.56	.001
	Masturbation	9(9.5)	11(12.1)	20(10.8)		
	Absorption in hobby and exercise	12(12.6)	17(18.7)	29(15.6)		
	Endure	29(30.5)	39(42.9)	68(36.6)		
	Other	5(5.3)	18(17.6)	23(11.3)		
Sexual life barrier	No partner	8(8.4)	26(27.9)	34(18.1)	32.63	<.001
	Sexual funtion weekness	54(56.8)	33(35.4)	87(93.5)		
	Disease, stress	4(4.2)	3(3.2)	7(7.5)		
	Social prestige	1(1.0)	5(5.3)	6(6.5)		
	Economical problem	6(6.3)	4(4.3)	10(10.8)		
	With shame		4(4.3)	4(4.3)		
	No place	2(2.1)	7(7.3)	9(9.7)		
	Contempt with elderly sex	2(2.1)		2(2.2)		
	Spouse refuse	13(13.6)	4(4.3)	17(18.3)		
Others	5(5.3)	7(7.4)	12(12.9)			
Sexual life experience (for the youth)	Very much	9(9.5)	7(7.5)	16(8.5)	18.91	<.001
	Much	33(34.7)	15(16.1)	48(25.5)		
	Moderate	51(53.7)	54(58.1)	105(55.9)		
	A little	2(2.1)	17(18.3)	19(10.1)		
Feeling about sex(Present)	Desire loss	30(31.6)	54(58.1)	84(44.7)	25.32	<.001
	Desire maintenance	48(50.5)	15(16.1)	63(33.5)		
	Desire suppression	17(17.9)	24(25.8)	41(21.8)		
Sexual life change	Positive	71(74.7)	81(87.1)	152(80.9)	4.64	.024
	Negative	24(25.3)	12(12.9)	36(19.1)		
Total		95(100.0)	93(100.0)	188(100.0)		

없다'는 욕구 소실형은 44.7%이었고, '노인이 되어도 멋있는(예쁜) 사람을 보면 좋고 흥분된다.'는 욕구 지속형은 33.5%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남자노인의 50.5%는 욕구가 지속된다고, 여자노인

의 대다수 58.1%는 욕구가 소실된다고 하였으며 성에 대한 느낌도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노인의 성생활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는 '늙었으니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Table 4> Sexual life of the elderly who maintaining a sexual life

(N = 1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le	Female	total	x ²	p
		N(%)	N(%)			
Sexual frequency	1~2 times/ 1 week	13(17.1)		13(12.9)	19.78	.001
	1~2 times/ 1 month	39(51.3)	6(24.0)	45(44.6)		
	1 time/ 2 months	14(16.4)	10(40.0)	24(23.8)		
	1 time/ 1 year	8(10.5)	4(16.0)	12(11.9)		
	others	2(2.6)	5(20.0)	7(6.9)		
Sexual partner	spouses	49(64.6)	8(32.0)	57(56.4)	11.76	.008
	friend	21(27.6)	13(52.0)	34(33.7)		
	a fallen women	3(3.9)		3(3.0)		
	others	3(3.9)	4(16.0)	7(6.9)		
Sexual satisfaction	Very satisfied	6(7.9)		6(5.9)	8.47	.076
	Satisfied	27(35.5)	4(16.0)	31(30.7)		
	Moderate	31(40.8)	12(48.0)	43(42.6)		
	Unsatisfied	9(11.8)	6(24.0)	15(14.9)		
	Very unsatisfied	3(3.9)	3(12.0)	6(5.9)		
total		76(100.0)	25(100.0)	101(100.0)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남자노인이 80.9%이었고, 19.1%는 '기분이 우울하고 안 좋은 느낌'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생활 변화도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24).

현재까지 성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의 성생활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생활 빈도는 남자노인은 월 1~2회가 51.3%, 두 달에 한번이 17.1%, 주 1~2회가 16.4, 1년에 한 두 번이 10.5% 순이었고, 여자노인은 두 달에 한번이 40.0%, 월 1~2회가 24.0%, 1년에 한 두 번이 16.0%,로 순으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성생활 상대는 남자노인은 배우자가 64.5%, 이성친구가 27.6%, 매춘종사자 2.5%, 기타가 7.5%로 순이었고, 여자노인은 이성친구가 52.1%, 배우자가 32.0%, 기타가 16.0%로 남녀간에 차이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성생활 만족은 남자노인은 보통이다가 40.82%, 좋은 편이다가 35.52%, 나쁜 편이다가 11.8%, 매우 좋다는 7.9%, 매우 나쁘다는 3.9%로 나타났다. 여자노인은 보통이다가 48.0%, 나쁜 편이다가 24.0%, 좋은 편이다가 16.0%, 매우 나쁘다는 12.0%순으로 나타나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일반적 특성과 성생활 실태에 따른 성 인식의 차이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식의 차이는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은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성태도, 성중요도, 성 욕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성태도, 성중요도, 성 욕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교육수준은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성태도, 성중요도, 성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대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성태도, 성중요도, 성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성생활 실태에 따른 성인식의 차이는 현재 성생활 유무, 횟수, 성생활 만족도, 욕구해결, 성에 대한 느낌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성태도, 성중요도, 성인식 정도가 높았으며 횟수가 많을수록 성태도와 성욕구의 점수는 높았으며, 성중요도, 성욕구는 월 1~2회일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생활 만족도에서는 만족도가 높을 수록 성태도, 성중요도, 성욕구가 높았으며, 욕구해결방법은 이성과의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성태도, 성중요도, 성욕구 모두 높게 나타났다. 성에 대한 느낌은 욕구 지속형이 성태도, 성중요도, 성욕구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성생활 변화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성태도, 성중요도, 성욕구 모두 높게 나타났다(Table 5).

4. 노인의 성인식과 성인이 지각하는 노인에 대한 성인식

노인의 성 인식을 성별로 비교한 결과 남자노인의 경우 성인식은 4점 만점에서 평균평점 2.41(0.43)점이었으며 여자노인은 1.67(0.44)으로 남자노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성인식의 하부요인을 비교해 보면 성생활 태도는 평균 평점이 남자노인은 2.90(0.61)점, 여자 노인은 2.25(0.46)점이었으며 남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성생활 중요도는 평균 평점이 남자노인은 2.82(0.71)점, 여자 노인은 1.68(0.62)점이었으며 남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또한 성생활 욕구는 평균 평점이 남자노인은 2.76(0.59)점, 여자 노인은

1.74(0.55)점이었으며 남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일반성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성 생활 인식은 남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부영역에서는 성생활 중요도에서만 남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과 일반성인의 노인의 성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성생활 태도, 성생활 중요도, 성생활 욕구에서 모두 성인이 노인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Table 6).

IV. 논 의

최근에 들어 노년기의 성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의 필요를 절감하고 노년기 성에 대한 연구가 점차 진행되어지고 있다. 인간의 성은 죽는 순간까지 유지되는 본성이며, 사회에서 간과하고 있는 노인의 성적 욕구는 한 개인의 권리이다(Miller, 2001).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성실태와 성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노인의 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노인의 성생활을 실태를 파악하여 보면 현재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은 54.0%이었으며, 이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자노인은 80.0%, 여자노인은 27.2%이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Yang 등(2003)의 60~92세 남성노인의 73.7%가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연구결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Dimah와 Dimah(2004)의 연구에서 60세 이상 남자노인의 67%, 여자노인의 53.3%가 성 활동을 한다는 보고와 비교할 때 여자노인의 성생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ARHP(2001)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60~69세 노인의 52%, 70세 이상 노인의 36%가 현재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Kim의 연구(2005)에서는 전체 노인의 59%가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성

<Table 5> Difference of sexual perception of the elderly according to sexual life and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xual attitude	p	sexual importance	p	sexual desire	p
Sex	Male	2.90(0.61)	<.001	2.82(0.71)	<.001	2.76(0.59)	<.001
	Female	2.25(0.55)		1.68(0.62)		1.74(0.55)	
Spouse	Yes	2.39(0.63)	<.001	1.99(0.82)	<.001	1.98(0.71)	<.001
	No	2.78(0.64)		2.54(0.85)		2.53(0.72)	
Education	None	2.35(0.48)	<.001	1.77(0.62)	<.001	1.83(0.51)	<.001
	Elementary	2.34(0.69)		2.04(0.94)		2.00(0.73)	
	Middle school	2.55(0.64)		2.43(0.91)		2.29(0.81)	
	High school	2.85(0.64)		2.53(0.76)		2.65(0.66)	
	College and above	3.24(0.41)		3.11(0.46)		3.03(0.48)	
Health state	Healthy	2.84(0.60)	<.001	2.58(0.83)	<.001	2.47(0.75)	.001
	Moderate	2.77(0.63)		2.08(0.84)		2.13(0.72)	
	Unhealthy	2.53(0.70)		1.90(0.83)		2.10(0.78)	
Sexual life (present)	Yes	2.80(0.63)	<.001	2.65(0.82)	.335	2.55(0.71)	<.001
	No	2.33(0.61)		1.81(0.71)		1.91(0.68)	
Sexual frequency	1~2 times/ 1 week	3.36(0.45)	<.001	2.77(0.53)	<.001	2.81(0.58)	<.001
	1~2 times/1 month	2.97(0.46)		3.01(0.65)		2.82(0.51)	
	1 time/ 2 months	2.49(0.68)		2.24(0.87)		2.32(0.64)	
	1~2 times/ 1 year	2.50(0.75)		2.53(0.83)		2.35(0.82)	
	Others			1.71(0.87)		1.46(0.77)	
Sexual satisfaction	Very satisfied	3.39(0.39)	<.001	3.39(0.33)	.004	3.13(0.63)	.007
	Satisfied	3.04(0.56)		2.85(0.73)		2.71(0.58)	
	Moderate	2.70(0.60)		2.51(0.86)		2.51(0.68)	
	Unsatisfied	2.44(0.72)		2.54(0.79)		2.38(0.82)	
	Very unsatisfied	2.05(0.13)		1.81(0.81)		1.82(0.92)	
Sexual desire solution	Sexual life with the other sex	3.03(0.58)	<.001	2.96(0.73)	<.001	2.75(0.70)	<.001
	Masturbation	2.53(0.61)		2.33(0.83)		2.39(0.83)	
	Absorption in hobby and exercise	2.40(0.70)		1.89(0.83)		1.95(0.72)	
	Endure	2.39(0.62)		2.03(0.77)		2.06(0.68)	
	Other	2.51(0.52)		1.90(0.72)		2.08(0.66)	
Feeling about sex (present)	Desire loss	2.33(0.63)	<.001	1.96(0.84)	<.001	2.02(0.74)	<.001
	Desire maintenance	2.94(0.61)		2.73(0.81)		2.65(0.72)	
	Desire suppression	2.54(0.58)		2.15(0.75)		2.12(0.62)	
Sexual life change	Positive	2.53(0.65)	.532	1.19(0.82)	.008	2.21(0.75)	.717
	Negative	2.81(0.71)		2.54(1.05)		2.44(0.81)	

<Table 6> Perception of sex in the elderly and adults

	Elderly(M)	Elderly(F)	p	Adult(M)	Adult(F)	p	Elderly	Adult	p
	N=95	N=93		N=81	N=95		N=188	N=181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Sexual attitude	2.90(0.61)	2.25(0.55)	<.001	2.90(0.59)	2.89(0.46)	.014	2.58(0.67)	2.89(0.52)	<.001
Sexual importance	2.82(0.71)	1.68(0.62)	<.001	2.65(0.61)	2.43(0.53)	.286	2.26(0.88)	2.53(0.58)	<.001
Sexual desire	2.76(0.59)	1.74(0.55)	<.001	2.90(0.58)	2.57(0.49)	.116	2.25(0.76)	2.72(0.56)	<.001
Perception of sex	2.41(0.43)	1.67(0.44)	<.001	2.37(0.39)	2.23(0.30)	.075	2.04(0.57)	2.29(0.35)	<.001

M ; Male, F ; Female

노인의 64.8%, 여성노인의 50.8%가 성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ung 등(2004)의 연구에서도 남성노인의 50.7%가 현재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비록 연구들마다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다를지라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적 기능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노년기에도 지속적인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생활 상대는 남자노인은 배우자 64.6%, 이성 친구 27.6%, 매춘종사자 3.9%, 기타 3.9% 순 이었고 여자노인은 이성친구가 52.0%, 배우자 32.0%, 기타 16.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여자 노인의 경우 성생활 상대가 배우자보다 이성 친구가 높게 나타난 것은 남자의 평균수명이 짧아서 여자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Chung 등(2004)의 연구에서도 남성노인의 최근 한달안에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도 1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생활 하고 있는 경우 성생활 만족도는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모두 보통이다가 40.8%, 48.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였다. Terrie, Sherry와 Veronika(2005)에서는 실제로 성파트너가 존재하는 대상자의 83%

가 성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생활 욕구해결에서 남자노인은 이성과의 성생활을 한다가 42.1%,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참는다 30.5%, 취미생활이나 운동에 몰두 12.6% 자위행위 9.5%이였으나, 여자노인은 해결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참는다 42.9%, 취미생활이나 운동에 몰두 18.7%, 자위행위 11.0%, 이성과의 성생활은 한다 8.8%로 이는 여자 노인에 비해 남자노인이 신체적 접촉에 대한 강한 욕구로 인한 성생활에 대해 더 적극적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성생활 장애에 관해서는 남자노인은 나이가 들어서 성기능 약화 58.7%, 배우자가 응해주지 않아서 14.1%로 나타났다. 반대로 여자노인은 나이가 들어서 성기능이 약화 36.3%, 기회(상대)가 없어서 28.6%로 나타나 여자노인은 나이가 들어서 성기능 약화, 기회(상대)가 없어서, 적당한 장소가 없다, 창피해서 순으로 여자노인은 성에 대한 욕구가 있어도 남녀간에 성비의 차이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이 많아 성생활 장애가 있었으며, 성에 대해서 사회적 윤리적 체면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생활 장애에서 배우자가 응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남자노인은 14.1%, 여

자노인은 5.5%로 이는 노화와 관련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또는 오랜 성생활로 인한 배우자에 대한 성적매력을 상실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노인이 되어 성생활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는 '늙었으니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노인이 80.9%이었고, 19.1%는 '기분이 우울하고 안 좋은 느낌'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며 여자노인보다는 남자노인에게서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성적욕구가 강하므로 그 욕구가 좌절됨으로서 나타나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노인의 성인식에서는 성생활 태도, 성생활 중요도, 성생활 욕구 모두 남녀 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이창은(1999), DeLamater와 Sill(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렇게 성인식 정도에 남녀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 남성은 강한 충동으로 공격적인 성 형태를 취하게 하고 여성은 경제적 종속과 더불어 성의 종속상태에서 성적 자율권을 상실한 채 수동적인 성 형태를 취하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성역할 모델이 사회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Yang et al., 2003). 이러한 사회화로 인해 여자 노인의 욕구가 정말 소실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에 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조차 음란한 행동으로 몰아가는 노인 차별주의와 특히 여성의 정절만을 강조하는 성차별주의의 복합적인 결과로 인한 표현의 억제인지에 대해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인의 성인식에 대한 노인과 성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성생활 태도, 성생활 중요도, 성생활 욕구 모두 성인이 노인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성인이 노인의 성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과거에는 노인은 성적인 존재가 아니 다라고 규정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모들은 성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기대하거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성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한 선행연구(Gordon & Synder, 1986)보다 본 연구의 성인들은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편협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현재의 성인세대들이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을 노인보다 높게 인식하다는 것은 사회 전체가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식의 차이는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Kim(2005)의 연구는 성인식이 성별, 연령, 교육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Kim과 Lee(2000)의 연구에서도 성별,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와 일치를 보였다.

노인의 성생활 실태에 따른 성인식의 차이는 성생활 횟수, 성생활 만족도, 성생활 욕구 해결 방법, 성생활에 대한 느낌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는데, Lee(1999)의 연구에서도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 스스로 성 욕구를 지각하는 노인, 성생활 변화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인 노인이 성인식도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를 보였다. 그러나 Walter, Douglas와 Diana(1999)는 자신의 성적 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성행위 빈도가 증가함으로써 성에 대한 인식이 노년의 성생활과 관련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성생활 변화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성인식이 높아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차후 반복 연구를 통해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성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성태도를 연구한 Aizenberg, Weizman과 Barak(2002)의

연구에 의하면 너싱홈에 입소한 시설 노인들은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시 자신과 자신의 성과트너가 성기능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 치료과정에 참여할 것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건강전문가들은 노인의 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성욕구에 대해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Padoani, Dello Buono, Marietta, Zaghi, & Deleo, 2000). Gott와 Hinchliff(2003)의 연구에서 노인의 성에 대한 건강 전문가들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 건강 전문가의 노인의 성에 대해 인식이 낮고, 노인의 성적 건강과 관련하여 대상자와 의논한 경험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의 규칙적인 성생활은 노인들에게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아니라 우울의 감소와 같은 정서적,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lock, 1999). 실제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발기부전, 성교통,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능력, 근긴장도, 뇨실금 빈도 등에서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unn, Croft, & Harzorg, 1999).

이상과 같이 노인의 성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노인의 성이 무시되고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는 노인의 성생활이 노년기 삶의 중요한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노인을 성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생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 성생활 실태, 성인식을 조

사하고, 일반적 특성, 성생활 실태에 따른 성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또한 노인의 성인식과 성인의 노인에 대한 성인식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노인의 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노인의 성과 관련된 효과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B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가능하고 신체적 외부적 결함을 지니지 않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허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방법은 임의 표집방법으로 남자 노인 100명, 여자 노인 100명으로 할당하여 200명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그 중 성실히 응답한 188부를 분석하였다. 일반성인에 대한 조사는 B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50세 이하를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였으며 회수된 200부 중에서 성실히 응답한 181부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χ^2 -test,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54.0%은 현재 성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자노인의 80.0%, 여자노인의 27.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2. 노인의 성 인식은 남자 노인의 경우 성인식은 4점 만점에서 평균평점 2.41(0.43)점이었으며 여자노인은 1.67(0.44)으로 남자노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일반성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성 생활 인식은 남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노인과 일반성인의 노인의 성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성생활태도, 성생활 중요도, 성생활 욕구에서 모두 성인이 노인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3.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식의 차이는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생활 실태에 따른 성인식의 차이는 현재 성생활 유무, 횟수, 성생활 만족도, 욕구해결, 성에 대한 느낌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무성적인 존재이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적 욕구가 소멸될 것이라는 사회적인 편견과는 달리 노인은 성적인 욕구와 성적인 능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성생활에서 만족감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노인은 독특한 욕구를 가진 단일한 존재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노인들이 성적인 존재로서 질적인 삶을 향유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의 성문

제에 대해서 보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사들은 성적 존재로서 노인의 질적인 삶을 위해 노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노인, 의료기관 및 노인 시설 종사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노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노인의 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 평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2) 노인의 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3) 본 연구는 활동이 가능한 남, 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시설노인이나 입원노인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AHRP(2001). Sexual Activity survey. New York : Plenum Press.
- Aizneberg, D., Weizman, A., & Barak, Y.(2002). Attitudes toward sexuality among nursing home residents. Sex Disabil, 20(3), 185-190.
- Block, J. D.(1999). Sex over 50. New Jersey : Prentice-Hall Press.
- Chung, Y. K., Ahn, S. R., & Jeon, M. S.(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life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male. J Korean Gerontol Nurs, 6(2), 156-162.
- DeLamater, J. D., & Sill, M.(2005). Sexual desire in later life. J Sex Res, 42(2), 138-149.
- Dimah, K., & Dimah, A.(2004). Intimate relationships and sexual attitudes of older african american men and women. Gerontologist, 44(1), 612.
- Dunn, K., Croft, P., & Harzorg, R.(1999). Association of sexual problem with social, psychological and physical problems in men and women : Across-sectional population survey.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53(3), 144-148.
- Gordon, S., & Synder, C.(1986). Personal issues in human sexuality, Boston, Massachusetts : Allyn & Bacon
- Gott, M., & Hinchliff, S.(2003). Sex and aging. A gendered issue? In S. Arber. K. Davidson., & J. Ginn. Gender and aging : Changing roles and relationship. Buckingham : Open University Press.

- Kang, H. S., & Kim, T. H.(2002). A Qualitative Study on the Spouseless Elder's the Sexual Desire and Types of its Solution. J Korean Assoc Fam Relat, 7(3), 127-151.
- Kim, J. H.(2005). Perception of sex, sexual life and sexual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Ewha Wome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K. J.(2002). Study on the influence of old women's understanding of sex on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Hallym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K. Y.(2005). A study on realities and cognition of old age sexua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hung-Ang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S. H., & Lee, C. E.(2000). A study on sexuality of the married Korean elderly. J Korean Gerontol Soc, 20(3), 185-196.
- Kinsey, A., Pomeroy, W., & Martin, C.(1948).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Philadelphia : Saunders.
- Kweon, M. S.(2002). An exploratory study on sexuality of elderly peop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Lee, C. E.(1999). The relationship of cognition of old age sexual life and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Hanyang University, Seoul.
- Miller, A. M.(2001). Uneasy promise : Sexuality, health and human rights. Am J Public Health, 91(6), 861-864.
- Oh, J. J.(1998). A study on sexual experiences and behaviors of aged in community. J Korean Acad Public Health Nurs, 12(2), 236-251.
- Padoani, W., Dello Buono, M., Marietta, P., Zaghi, P. C., & Deleo, D.(2000). Influence of cognitive status on the sexual life of 352 elderly Italians aged 65-105 years. Gerontology, 46, 258-265.
- Susan, M., & Chris, E.(2002). Sexuality in older men with mental health problems. Sex Relat Ther, 17(3), 271-279.
- Terrie, B. G., Sherry, C. P., & Veronika, K. F.(2005). Sexuality in older adults ; Behaviours and preferences. Age Ageing, 34, 475-480.
- Walter M. B., Douglas, H. W., & Diana, W.(1999). Sexual function in 1202 aging males; different aging aspects. J Gerontol, 54, 237-241.
- Yang, S. O., Kim, S. S., Jeong, G. H., & Kim, S. J.(2003). Life style and awareness of sexuality in elderly people. J Korean Gerontol Nurs, 5(2), 158-170.